

서울시 중년기 주부의 추모의례에 대한 인식 연구

구 속 회(성신여대 석사) · 최 배 영(성신여대 겸임교수)

추모의례는 종교별로 의식절차 상에는 차이가 있으나 조상의 기일에 그 분을 기리고 추모하는 의례를 통칭한다. 현재까지의 논문들을 살펴보면 문화인류학, 사회학, 신학, 가정학과 같은 학문 분야에서 대부분 유교적 제례 실태 파악에 국한되어 다양한 종교별 추모의례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년기 주부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갖고 있는 추모의례에 대한 인식과 아울러 향후 자녀세대에게 바라는 추모의례에 대한 견해를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노후생활을 준비하는 중년기 주부들이 인식하는 시대변화에 따른 추모의례문화의 본질적 의미에 대한 재정립을 토대로 바람직한 추모의례의 모델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면접대상은 스노우볼(snowball) 방식을 통해 서울시에 거주하는 40·50대 중년기 주부 40명(무교, 기독교, 천주교, 불교의 각 종교별로 10명씩)을 표집 하였고, 2009년 8월 1일부터 2009년 10월 20일까지 반구조화된 설문지로 일대일 심층면접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공식적인 면담 시간은 평균 1시간 이상이었고, 한 사례 당 평균 2회 정도의 면담기회를 가졌다. 조사 후 면담 내용을 모두 타이핑하여 자료화하였으며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전화로 자료를 보완하였다. 2009년 10월 25일부터 2009년 11월 10일까지 자료화된 면담내용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추모의례에 대한 중년기 주부들의 인식을 살펴보면 많은 이들이 추모의례의 의의를 조상을 향한 정성의 표현으로, 그분을 기리는 정(情)의 문화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추모의례의 기능은 그를 통해 가족들이 화목과 협동을 도모하고 공동체적 일체감을 느끼게 되는 점 그리고 조상의 교훈과 유지를 기억하고 열심히 생활하게 되며, 효의 근본을 일깨우는 자녀교육의 계기가 된다는 점으로 집약되었다. 추모의례문화의 지속여부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형식이나 절차는 점차 축소되면서 보다 간소화된 모습의 추모의례가 지속될 것으로 예견되었다.

둘째, 향후 자녀세대에게 바라는 추모의례에 대한 견해를 종합해보면 현행과 같은 형식이 유지되기를 희망하는 경우 외에도 자녀세대의 의사에 따라 다른 형식으로 변화되거나 종교 간 추모의례의 접목 혹은 종교기관이나 추모시설에서 추모의례 이행의 가능성도 언급되었다. 이에 추모의례의 모델은 의례가 이행되는 장소에 따라 가정(유교식, 기독교식, 유교식+천주교식, 유교식+불교식), 종교기관(성당, 사찰), 추모시설(봉안당, 수목공원, 산소 등)의 모델로 제안되었다. 추모의례의 대상은 1대조 혹은 2대조 까지로 응답했으며, 날짜와 시간은 돌아가신 날 저녁 혹은 돌아가신 전날 저녁 외에도 돌아가신 날을 앞둔 주말저녁이나 공휴일 혹은 자녀세대가 모이기 편리한 시간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추모의례를 위한 음식준비는 성의 있게 하되 시간과 가사노동, 비용 면에서 형제들의 상호분담으로 간소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되며, 가족들이 선호하는 음식이나 고인을 생각할 수 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도 정서적인 측면에서 일부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중년기 주부만을 대상으로 추모의례의 인식을 파악하는데 그쳤으므로 추후에는 부부가 함께 지향해야 할 추모의례의 모델 연구 및 모델 수정작업이 기대된다.